

성탄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매년 12월이 되면 저는 매우 바빠 집니다. 12월 초하루에 “생일 축하합니다”로 제 아내의 생일을 지내고 나기가 무섭게 아직도 생일 축하 노래가 컷전에 생생한데 3일 후에는 결혼 기념일이 다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 축하합니다”를 부르고 나면 3주 후에 “즐거운 성탄을 축하합니다”를 불러야 하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제가 결혼 전에는 이런 특별한 날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기간 제 아이들이 계속 카드에 선물 준비하느라고 지갑이 점점 얇아지는 것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 셋중에 12월에 출생한 아이는 없으니 다행입니다.)

저는 성탄 선물 준비를 미리 다 해놓고 바쁘지 않은 연말과 성탄을 지내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를 총총걸음 하게 만드는 것은 물건을 구입하는 일뿐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고르냐 하는 문제는 더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해서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회사들이 눈길을 끄는 새 상품을 내놓고 선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금으로 만든 손톱깎이는 어떨까요?” “반짝이

는 보석과 진주로 장식한 머리 빗을 필요로 하는 분이 없습니까?” 물론 남자들을 위한 선물도 있습니다. 자동 손목시계를 보관하는 상자는 어떻겠습니까? 이 상자는 자동태엽 시계를 오랫동안 넣어 두어도 상자 안에 자동으로 흔들어 주는 기계 장치가 되어있어서 시계가 죽지 않게 해 줍니다. 물론 이 상자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계 몇 개보다 훨씬 비쌀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는 분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대개 우리가 주는 선물은 또 다른 선물이 되어서 돌아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선물은 친구나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돌고 도는 선물입니다. 우리들에게 성탄절은 선물을 주는 것과 동시에 선물을 받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불황이라는 계절에도 우리가 그렇게 바쁜 것입니다.

이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생존을 위한 또 하루의 시간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축하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고통만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폐결핵(TB, Tuberculosis)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폐결핵은 수 천 년 전에 고대문명의 발생지인 그리스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황폐화 시킨 적이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최근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어서 UN의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05년에 920만의 새로운 폐결핵 환자가 발생했는데 거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170만 명이 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핵은 예방이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라는 개발도상국들의 열악한 사회 구조와 적절한 약을 구하기 힘든 형편이 상황을 악화시

키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6개월간 철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약을 계속 구입해서 복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UN 통계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는 국민의 1.3%가 결핵환자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통계 대상이 된 여러 나라 중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한국 적십자와 월드비전 총재를 역임한 이윤구 박사에게 의하면 협조가 되지 않은 북한의 경우 놀랍게도 전국민의 5%인 약 100만의 결핵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중에 무려 30%가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핵은 세계적 질병으로 퍼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침울한 통계자료 가운데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환자에게 공급하게 되는 결핵 치료제와 종합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30불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의 세계봉사 개발국(PWS&D)에서 여러분이 보내시는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선물을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기꺼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선물은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선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숨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선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물 찾기 위해서 바빴던 발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진짜 사람에게 진짜 선물을 보내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쁜 성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표를 PWS&D로 발행하시고 노트란에 “Zero TB”라고 적어주십시오.)